'부르고뉴 와인의 수도라고 불리는 뫼르소 화이트'

도멘 뒤 파비용 뫼르소 프리미에 크뤼 레 샤름

Domaine du Pavillon Meursault 1er Cru Les Charmes

지역	프랑스 〉 부르고뉴 〉 꼬드 드 본		
용량	750ml		
등급	프리미에 크뤼	시음 적정 온도	13-15℃
테이스팅 노트	절인 레몬, 아몬드, 흰 꽃, 향신료, 갓 구운 빵 내음 등 아로마의 표현력이 빼어난 매혹적인 와인이다. 풀바디의 복합적인 풍미를 가진 와인으로 미네랄 캐릭터와 산도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다. 피니쉬에서도 첫 향에서 느껴지는 브리오슈, 향신료와 같은 풍미가 길게 이어지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.		

	DRY				SWEET
당도	**1**	2	3	4	5

	LIGHT				FULL
바디	**1**	2	3	4	5

제품설명

부르고뉴의 대표 와인 산지인 꼬뜨 드 본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뫼르소는 와인 명산지로 유명한 곳이며, 최상급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다. 프리미에 크뤼 레 샤름은 점토질의 토양(Charmes-Dessous 지역)과 더 입자가 고운, 석회질에 가까운 성분으로 이루어진 토양(Charmes-Dessus), 두 곳에서 주로 와인을 생산하는데, 전자는 더욱 풍부하고 화려한 스타일의 뫼르소가 생산되며 후자는 더욱 뚜렷하고 미네랄리티가 돋보이는 뫼르소가 생산된다. 도멘 뒤 파비용의 레 샤름은 각기 다른 두 가지 토양의 구획을 블렌딩해 생산된 와인으로, 보다 뛰어난 복합미와 밸런스가 특징이다.

수상내역

2022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4점
2022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1점
2021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2점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